

第26回 全國民俗競演大會

# 晋州拋毬樂舞

때 : 1985년 9월 20일

곳 : 江原道江陵市



慶尚南道  
晋州市  
晋州民俗藝術保存會

# 人事 말씀



晋州市長 安吉鉉

百穀이 豊登한 이 때를 맞이하여 傳統藝術을 發掘繼承하여  
이를 오늘에 되살려 文化民族의 矜持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第 26回 全國 民俗競演大會 開催를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獨創性이 豊富한 郷土先人들이 精誠으로 集成해 놓은 晋州 抛毬樂舞는 한때 外  
勢의 抹殺策略으로 많은 試鍊을 겪기도 했으나 雜草와도 같은 끈질긴 生命力은 모  
진 눈서리를 이기면서 그 命脈을 이어 왔습니다.

最近 몇몇 郷土藝術人들의 執念어린 努力으로 마침내 그 原形을 되찾아 再現을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값진 遺産을 우리 모두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가꾸어 나  
가야할 使命 더욱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이 “抛毬樂舞”가 異彩로운 地域特性을 지닌 傳統民俗藝術로써 活氣차게  
成長 發展 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1985년 9월 일

# 차 례



◎ 考 證 者 略 歷	5
一、發 掘 經 緯	6
二、拋 毬 樂 由 來	8
三、晋州拋毬樂 이란?	9
四、演 戲 順 序	10
五、宮中拋毬樂과 差異點	12
六、唱 詞	13
七、出 演 者 名 單	14



## ○ 晋州 抛毬樂藝能保有者 ○



李 潤 禮 女史 (當83才)

\* 일찌기 15세때 晋州妓女組合에 入籍하여

20세까지 歌舞를 익혔음.

\* 20才에 結婚 家庭生活

\* 30才부터 다시 晋州券番에 들어가 活躍했음.

\* 64才인 1966년에 無形文化財 12號 晋州劍舞 藝能保有者로 指定받고부터

傳統郷土藝術 傳授에 功獻하고 있음.

※ 이번 晋州 抛毬樂 發掘에 實技는 不可能 하나 順序와 춤사위를 알고

있으므로 그대로 再現하였음.

# 一、發掘經緯



우리 晉州는 歴史的으로 由緒깊은 곳일 뿐 아니라 땅이 기름지고 氣候가 쾌적한 연유로 人心이 純厚하고 文化藝術이 豊盛한 고장이다.

특히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義妓論介를 追慕하는 義岩別祭의 歌舞祭가 있었고 그 餘興 歌舞 속에는 여러가지 傳統舞踊들이 今世紀 初葉까지 保存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日帝의 侵略으로 朝鮮朝가 무너진 뒤로는 온갖 傳統文化가 그들의 抹殺 策略에 의해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千萬多幸으로 光復以前까지 우리 晉州에는 崔順伊(1965年 作故) 金子眞(1981年 作故) 姜貴來(1978年 作故) 李潤禮(生存 83才) 先生等 훌륭한 傳統舞踊人들이 生存했던 때문에 뜻 있는 분들이 그동안 八劍舞(無形文化財 12號) 閑良舞(경남 地方文化財 3號) 등 稀貴한 춤들을 거의 原形대로 復元할 수 있었다.

이번에 찾아낸 이 拋毬樂舞도 우리 晉州 고장이 傳統藝術의 발글을 위하여 努力해온 그 一環의 하나다.

其實은 진작부터 義岩別祭(論介의 祭儀式과 그 餘興 歌舞: 鄭顯奭의 “教坊歌謠”에 실려있음)를 復元해 보려는 努力을 기울여 오던 中 1976년에 李潤禮 先生으로부터 이 晉州 拋毬樂의 춤 構成과 動作을 確認하여 作品의 윤곽을 짜 놓고 있었다.

李先生은 晋州 券番出身으로 어려서부터 이 춤을 익혀 여러번 출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細部的인 動作까지 記憶하고 있어서 비교적 쉽게 再現이 可能했다.

그러나 다만, 그 當時로는 參考할 文献이 없어 덮어 두었는데 그 사이 義岩別祭 復元關係로 教坊歌謠(當時 晋州教坊廳에서 演出하던 教科)를 열람하다가 마침 그 책에 이 抛毬樂이 실려있고 그 解説과 그림이 李先生의 記憶과 符合했기 때문에 그대로 간추려서 本道가 主催한 今年 全國 民俗競演大會에 豫選에 出品했더니 多幸히 最優秀의 榮譽을 얻어 이번 大會에 參加하게 된 것이다.

民族의 傳統文化를 愛護하는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기다리면서 이 作品이 萬만하  
키 나갈수 있도록 돌봐 주시길 깊이 當부드리는 바이다.

사단  
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진주검무예능보유자 成季玉



## 二、抛毬樂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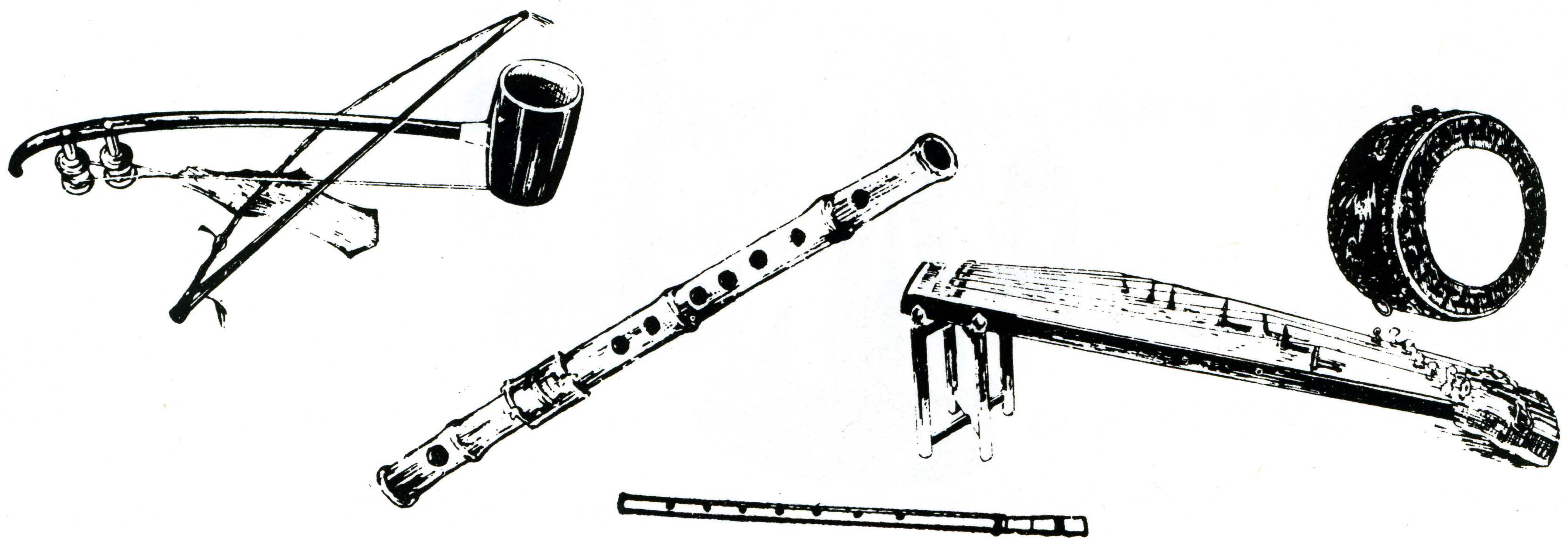
제기(毬) 처럼 수술이 달린 彩球를 抛毬門의 風流眼에 던져넣는 놀이를 춤과 音樂과 노래로써 形象化하는 宮中樂의 하나다. 高麗史卷 71樂 2의 唐樂條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일찌기 中國으로부터 들어와서 고려의 宮中宴會에 쓰이던 것임을 쉽게 알수 있다.

그 후 朝鮮朝에 들어와서도 重要的 宮中呈才의 하나였던 것은 成宗24년의 악학 規범과 高宗30년의 呈才舞圖笏記에 의해서 確認할 수 있다. 樂學軌範에는 券之 4 時用唐樂呈才圖儀에 실려서 初入排列圖와 더불어 자세한 절차가 적혀 있다.

高麗史樂誌의 그것보다 훨씬 豊富하게 敷衍되고 확대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쓰이는 주요 儀物인 포구문과 彩球에 대해서도 卷之 8 唐樂呈才儀物圖說에 그림과 함께 소상한 說明이 있다.

呈才舞圖笏記에는 악학規범과 比較하여 排列이 약간 간소화되고 唱詞도 조금 바뀌었을 뿐 변화없이 꼭 같은 절차를 보여 준다.

이로 하여금 宮中에서의 呈才가 얼마나 強力한 保守性을 띠고 400年 동안 傳承되었던가를 알수 있다.



### 三、 晋州抛毬樂이란?

앞서 發掘經緯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이것은 李潤禮先生의 回想에 따라 晋州 教坊에서 자주 演戲되었던 것이 확실하고 또 高宗 4年부터 4年 동안 晋州牧使였던 鄭顯奭의 기록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하기 때문에 일단 晋州 抛毬樂이라고 부르 고자 한다.

李先生에 依하면 이 춤은 晋州 監營의 宴會는 勿論, 每年 春秋에 축석루에서 開催되던 義岩別祭 漢詩白日場, 鄉射禮, 投壺禮, 鄉飲酒禮 等に 추었다고 한다.

特히 鄉射禮나 投壺禮에서 出 때는 놀이가 끝나면 활쏘는 男子들은 선비歌를 불 러 앞소리를 메기고 춤을 추던 女子들은 후렴을 받아 춤추며 흥겹게 한마당이 이 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抛毬놀이 勝負가 끝나자 선비歌를 부르게 된것은 이것을 依倣한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歸結이거니와 晋州 抛毬樂은 宮中呈才의 그것보다 몹시 축소되고 변화되면서 民俗化 했다. 宮中の 藝術이 地方官衙로 流出되고 그것이 다시 民衆속 으로 흘러 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傳播과정 및 經路는 어떠한가?

宮中과 地方官衙와 民衆이 追求하는 藝術的 趣向은 어떻게 다르며 그 表現形式은 어떤 特性들을 지니게 되는가?

이러한 興味로운 의문들을 專門的인 理論家들의 研究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晋州 抛毬樂의 發掘이 그런 의문을 푸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수도 있을 듯 하다.



## 四、演戲順序

1. 中央에 포구문을 세우고 奉花와 奉筆이 제자리에 선다.  
舞手들은 半月形 隊列로 큰 절을 하고 東西兩便으로 갈라 선다.
2. 拍을 치면 開場唱詞에 맞추어 斂手로 들어온다.  
이때 伴奏는 細靈山을 연주한다.
3. 拍 伴奏는 念佛도드리로 바뀐다.  
춤은 한삼평사위로 兩隊가 나선형으로 돈다.
4. 拍, 音樂이 붉는 도드리 장단으로 변하면서 춤은 쌍어리로 추면서 내외편대로 갈라진다.  
안밖으로 나누어진 舞員은 外向舞와 内向舞를 추되 外向舞員은 斂手足蹈하고, 内向員은 拋毬門에 꽂아 놓은 꽃을 向하여 折花舞를 춘다.
5. 拍, 内外舞員이 서로 交替한다.
6. 拍, 音樂이 打令曲으로 바뀌고 춤은 以手高低舞를 추며 兩隊가 역시 나선형으로 돌아 拋毬門을 사이에 두고 二列橫隊로 서로 마주본다.
7. 拍, 回袖舞 擡袖舞를 번갈아 추며 前進 後退한다.
8. 拍, 兩隊가 서로 등지고 돌아서서 色汗衫을 끌러 던지고 本 位置로 돌아간다.
9. 拍, 兩便이 各各 한사람씩 拋毬門을 向해 八手舞를 추고 들어와 포구틀 앞에 놓인 彩球를 보고 앉아 얼르다가 공을 집어 든 다음 일어서서 風流眼을 向해 공을 던질까 말까 망설이면서 포구문을 한바퀴 돌고 다시 공을 얼르다가 風流眼에 던져 넣는다.
10. 공이 命中하면 自便全員이 춤을 추며 지화자를 부르고 命中者 本人은 앞으로

나가 앞으면 奉花가 賞으로 三枝花를 머리에 꽂아 준다.

不中者는 나가면 奉筆이 罰을 주는데 눈언저리에 통방울을 그린다. 그 便  
全員은 앉아서 손뼉을 쳐 준다.

11. 拍, 兩便 두사람이 뒷걸음으로 本 位置에 돌아간다.

다음 以上과 같이 차례대로 다 한다. 머리의 꽃과 통방울로써 勝負가 결정된  
다.

12. 拍, 全員이 拋毬門 周圍를 돌면서 지화자를 부르고 자리로 돌아간다.

13. 拍,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 선비歌를 부른다.

舞手들은 춤을 추면서 노래의 후렴을 받는다.

14. 拍, 全員이 팔을 들고 평사위로 前進 後退를 하고 左右로 回旋하고 뒷걸음으  
로 本 位置에 돌아간다.

이때에 收場唱詞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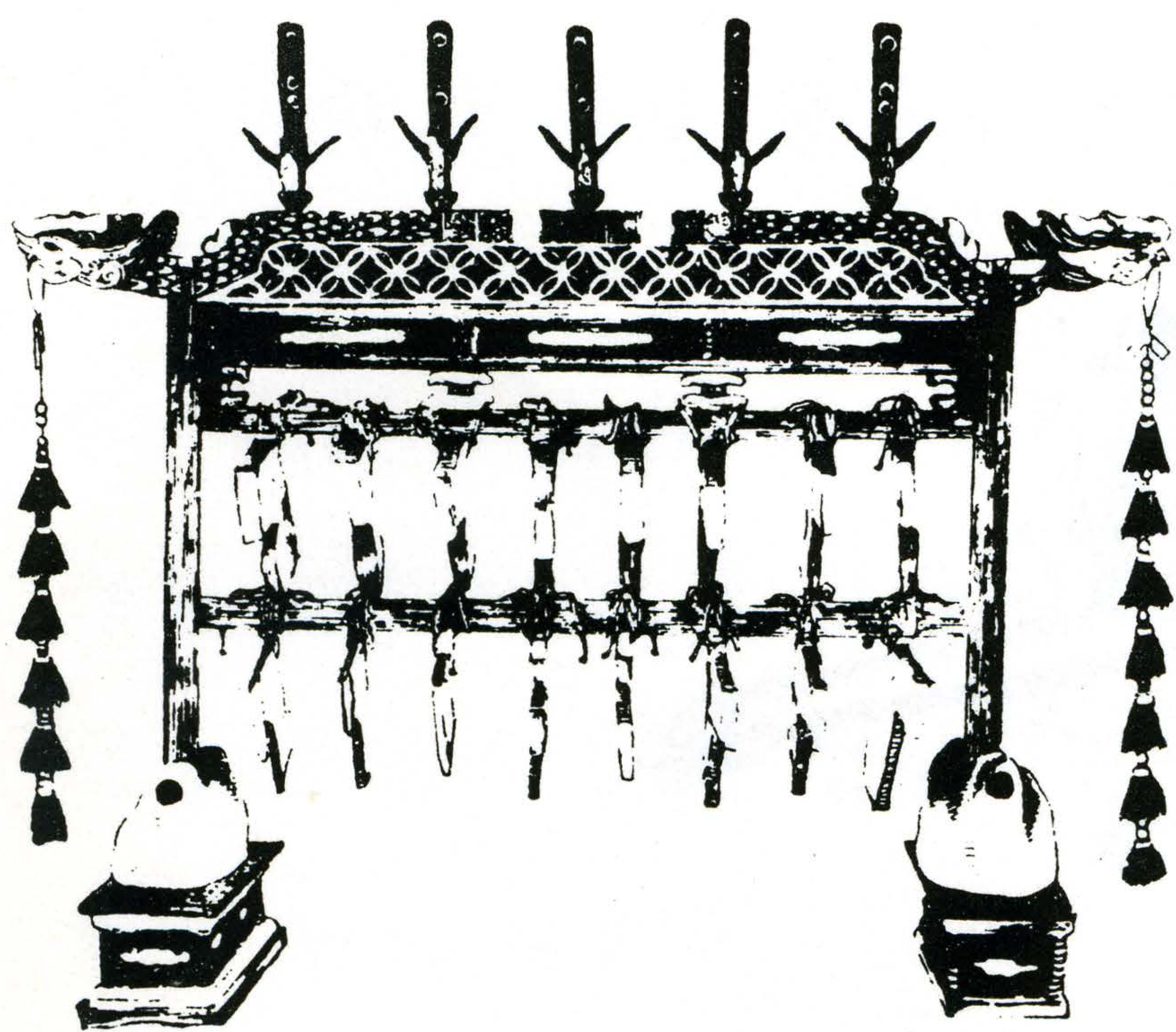
15. 拍, 다함께揖하고 退場한다.



## 五、宮中 抛毬樂과의 差異點

- 儀物 가운데 竹竿子가 없다.
- 衣裳은 花冠 몽두리를 하지 않고 치마저고리에 큰머리만 올린다.
- 開場과 收場때의 구호대신 우리말 노래를 부른다.
- 抛毬놀이때의 부르던 漢文 唱詞는 없어지고 命中때에만 지화자를 부른다.
- 賞罰에서 命中者의 賞은 布(布)대신 三枝花를 머리에 꽂아주고 不中者의 罰은 뺨에 찍는 먹점에서 눈언저리의 통방울로 확대되었다.
- 競技의 요소가 가미되어 全員이 머리의 꽃을 뽑아들고 지화자를 부르며 抛毬門 주위를 돌고나서 선비가를 부르며 한바탕 흥겨운 場面이 첨가 되었다.

※이 선비歌는 鄉射禮와 投壺禮에 같이 演戲되었을 때만이 있었으며 當時에는 앞소리(前腔)는 반드시 활쏘기에 참가했던 선비들이 메기었다 함.



# 六、唱 詞

## 1. 開 場 唱 詞

雅樂이 麗景에서 올려 퍼지니  
妓童들이 香階에 늘어섰구나  
다투어 예쁜모습 자랑하면서  
아름답게 나비춤 추어 올리니  
다 같이 즐겁기를 바라옵니다.

## 2. 收 場 唱 詞

彩球를 희롱하여 포구문을 쳐다보며  
몇번이나 견주어서 던져볼까 말아볼까  
얼씨구나 보기 좋게 風流眼을 명중하니  
좋을씨구 꽃상받고 통방울을 면했구나

## 3. 지 화 자

지 화 자 지 화 자 지 화 지 화 지 화 자  
지 화 ~ 자 지 화 자 얼 시 구 나 지 화 자

## 4. 선 비 가

- 前腔 : 아~아 궁차락  
後腔 : 궁차궁차 궁차락
- 前腔 : 오백년이 돌아 漢江물이 맑았도다.  
후렴 : 궁차락 궁차락 궁차궁차 궁차락
- 前腔 : 聖主 中興하시니 萬民의 威樂이로다.  
후렴 : 궁차락 궁차락 궁차궁차 궁차락
- 前腔 : 五百年이 돌아\*楓川江이 맑았네  
후렴 : 궁차락 궁차락 궁차궁차 궁차락
- 前腔 : 聖主 中興하시니 百穀이 豊登하셨다.  
후렴 : 궁차락 궁차락 궁차궁차 궁차락  
結句 : 葉아 궁차락아 궁차궁차 궁차락아.....

※ 楓川江 : 晋州 南江의 옛이름

# 七、出演者名單

考證者：李潤禮 女83才

發掘 및 指導：成季玉 女58才

No.	성명	연령	성별	담당역
1	成季玉	58	女	樂師 · 執拍
2	李鍾大	58	男	“ 卜
3	姜順令	58	女	“ 장고
4	심성희	23	女	“奚琴
5	김문홍	29	男	“피리
6	이연주	22	女	“피리
7	김경애	29	女	“大琴
8	정정옥	43	男	(唱詞伴奏) 아쟁
9	金貞愛	46	女	唱詞
10	姜姬淑	32	女	“
11	鄭畢順	57	女	舞手
12	朴雲子	43	女	“
13	韓英愛	30	女	“
14	金性仁	48	女	“
15	鄭今順	56	女	“
16	李貞禮	38	女	“
17	鄭美淑	24	女	“
18	車玉守	45	女	“
19	崔今順	56	女	“
20	鄭幸今	50	女	“

No.	성명	연령	성별	담당역
21	徐廷南	50	女	舞手
22	金連伊	49	女	
23	鄭英玟	33	女	"
24	朴又季順	51	女	"
25	鄭惠暎	28	女	"
26	金點達	59	女	"
27	金永愛	44	女	"
28	姜粉玉	46	女	"
29	金必洙	45	女	"
30	鄭英子	46	女	"
31	金必蓮	34	女	"
32	河明子	37	女	"
33	鄭任順	44	女	"
34	權廣子	45	女	"
35	姜渭男	40	女	"
36	吳明淑	36	女	"
37	宋英淑	26	女	"
38	崔點順	60	女	"
39	金幸子	44	女	"
40	金彩美	25	女	"
41	高順子	40	女	"
42	曹順愛	35	女	"
43	權泰曄	31	女	"
44	權泰曄	31	男	기수(旗手)